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12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11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11.(화)	담당부서	해외투자과
담당과장	안성호 과장(044-203-4090)	담 당 자	박주형 사무관(044-203-4069) 김현지 주무관(044-203-4065)

2021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동향

- 단일연도 역대 최대 실적(26개社, 6,815억원) · 누적 108개社 달성 -

Ⅰ. 총 괄

□ (국내복귀 규모) '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**26개社**(전년比 +2개社)이며 총 투자규모는 **6,815억원**

○ **26개社** 복귀는 단일연도 기준 **역대 최대 실적**이며, 해외진출기업의 **국내복귀** 통계를 **공식 집계**한 **'14년 이후 누적 108개社**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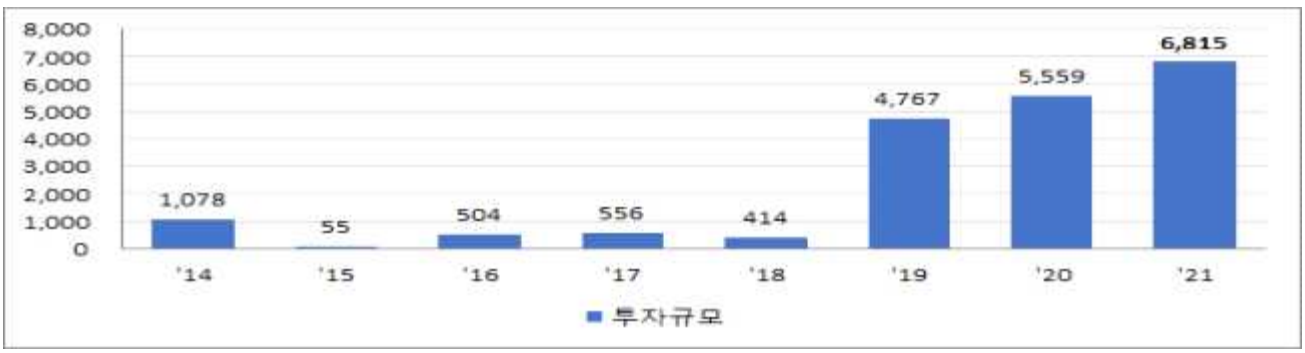
< 최근 8년간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실적 >

구분	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평균 ('14 ~ '20)	지난 4년간 평균 ('17 ~ '20)	'20년	'21년	계
국내복귀기업 수	11.7개社	13개社	24개社	26개社	108개社

* 국내복귀기업 :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상 요건을 충족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받은 기업

○ **투자규모(6,815억원)** 또한 전년대비 22% 증가하여 **역대 최대**를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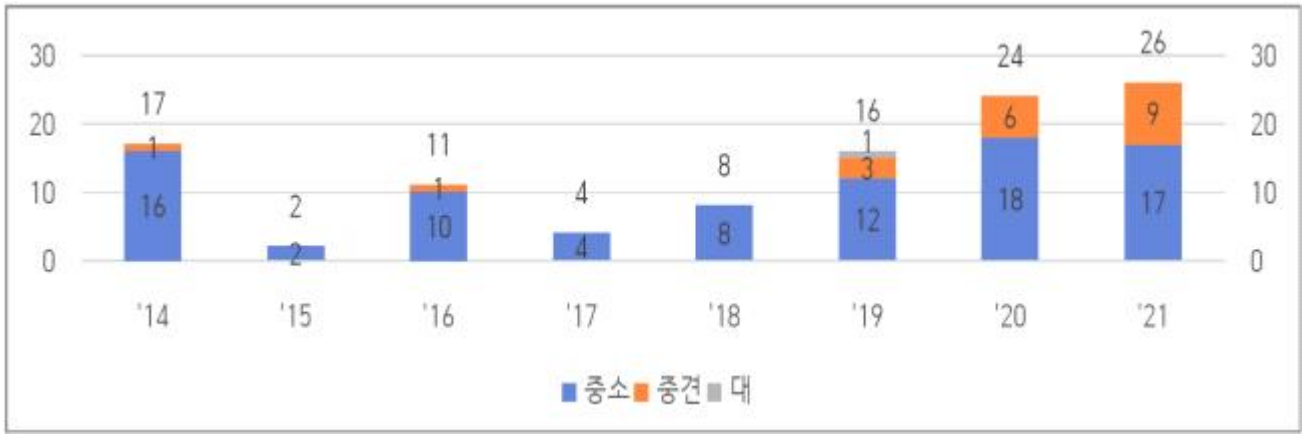
< 국내복귀기업 투자규모 추이 (단위 : 억원) >



□ (질적수준 제고) 중견기업 비중, 고용규모도 역대 최고치이며 공급망 핵심품목 기업 복귀 등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도 제고

○ 국내복귀기업 중 **중견기업**의 **비중**은 **34.6%**(9개社, 전년比 +9.6%p)로 역대 최고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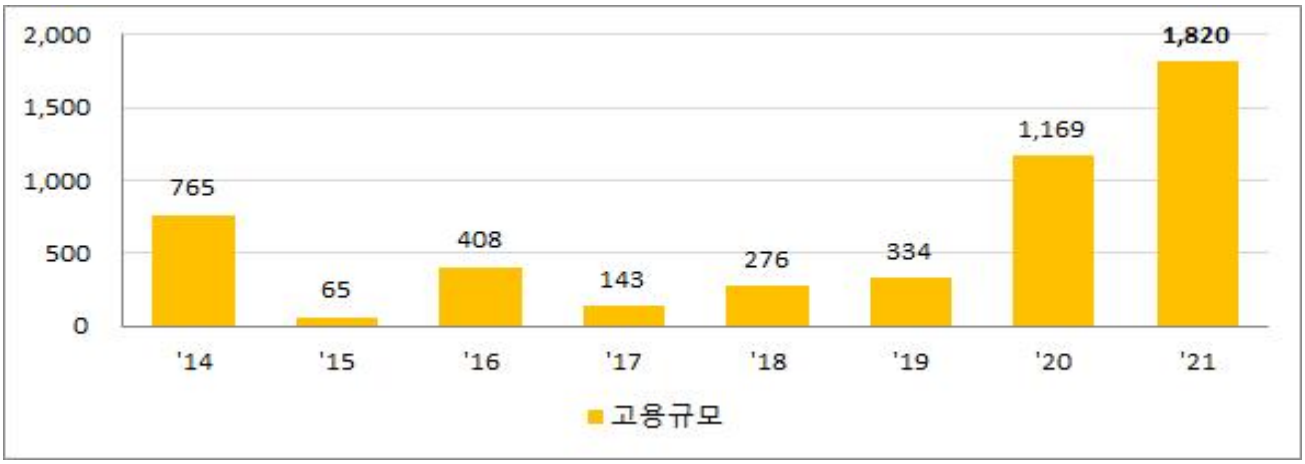
< 해외진출기업의 기업규모별 분포 추이 (단위 : 개社) >



○ **고용규모**도 **'20년에 비해 대폭 증가**한 **총 1,820명**(전년比 +55%)으로 역대 최고

* 투자규모, 고용규모는 모두 기업의 국내복귀 신청시 제출한 계획 규모를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서 실제 국내복귀 과정(해외사업장 청산, 국내사업장 신·증설 등)에서 변동 가능

< 국내복귀기업 고용규모 추이 (단위 : 명) >



○ 이차전지소재(L社),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(S社) 등 **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**(2개社) **복귀**로 **공급망 안정에도 기여**

II. 세부 분석 (복귀기업 수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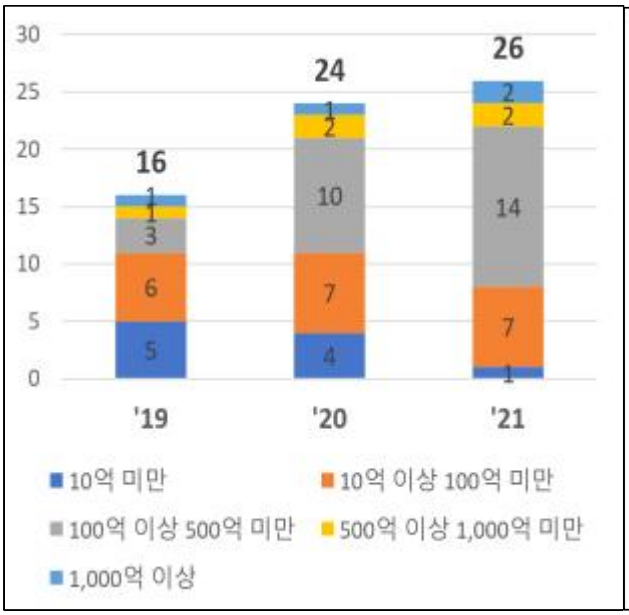
□ (투자규모) 국내복귀 기업들의 투자규모는 총 6,815억원이며, 대규모 투자 기업 수 및 평균 투자금액도 '20년 대비 증가

○ (기업별 투자금액)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 수는 18개社(전년比 +5개社)이며 비중도 69.2%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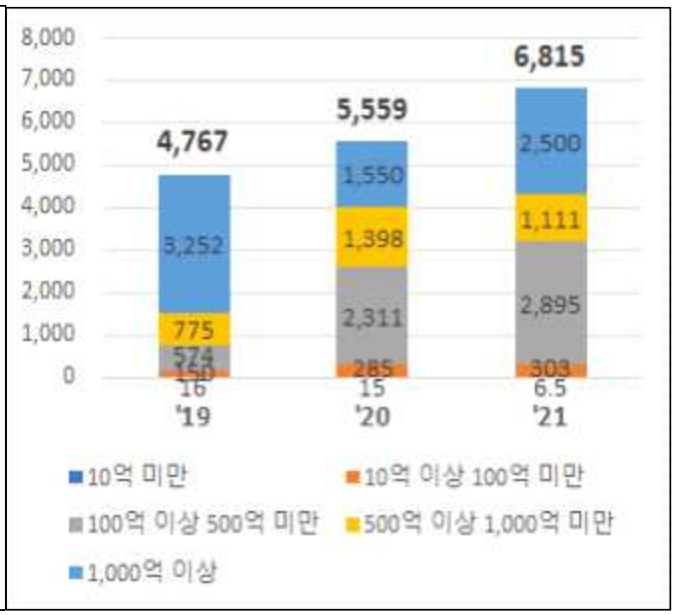
○ (평균 투자금액) 복귀기업당 평균 투자금액은 262.1억원으로 전년 대비 15.3% 증가

* 297.9억원('19) → 231.6억원('20, △22.3%) → **262.1억원('21, +13.2%)**

< 국내복귀기업의 기업별 투자규모 (단위 : 개社) >



< 국내복귀기업의 투자규모별 총투자 (단위 : 억원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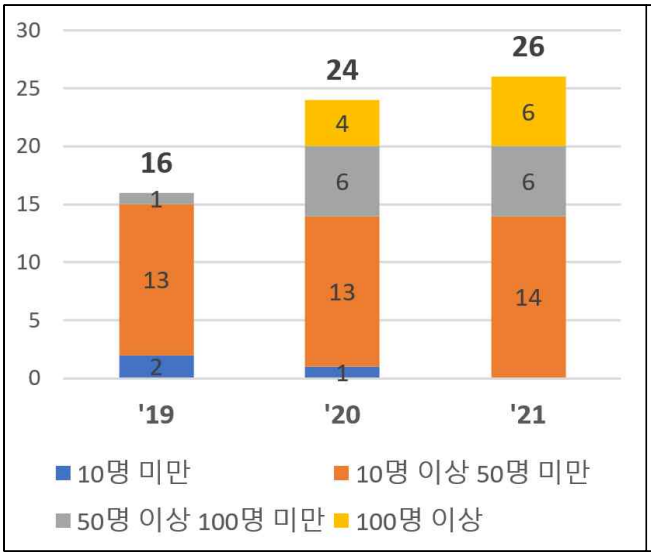
□ (고용규모) 총 고용규모는 1,820명이며, 대규모 고용 기업 수 및 기업당 평균고용도 증가

○ (기업별 고용규모) 100명 이상 고용 기업 수는 6개社(전년比 +3개社)이고 10명 미만 고용 기업은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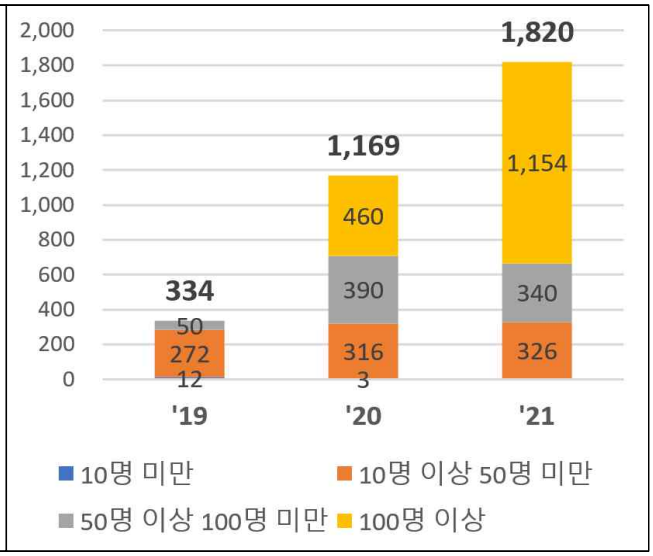
○ (평균 고용규모) 복귀기업당 평균 고용규모는 70명으로 2년 연속 증가

* 20.9명('19) → 48.7명('20, +133%) → **70명('21, +43.7%)**

< 국내복귀기업의 기업별 고용규모 (단위 : 개社) >



< 국내복귀기업의 고용규모별 총고용 (단위 : 명) >



□ (업종) 자동차(6개社), 전기전자(5개社), 금속(3개社) 순으로 주력업종이 전체 복귀기업 중 69.2%(18개社) 차지

< '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>



* 단위 : 업종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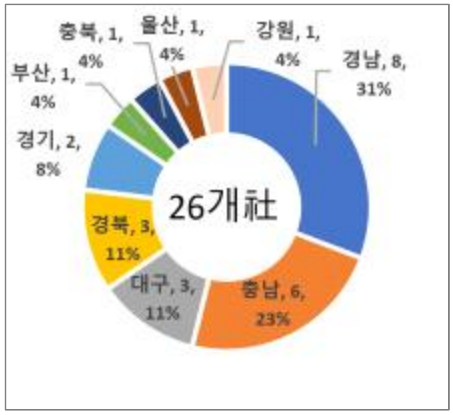
< '14 ~ '21년 복귀기업 업종별 분포 >



* 단위 : 업종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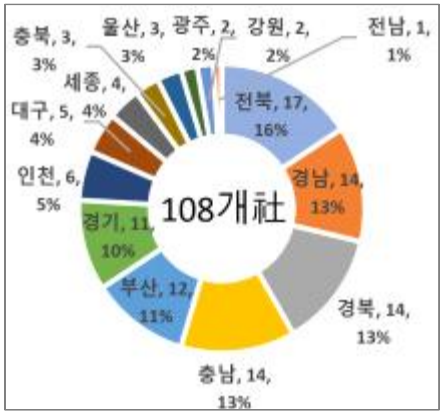
□ (복귀지역) 경남(8개社), 충남(6개社), 경북(3개社)·대구(3개社) 순

< '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>



* 단위 : 지역, 개社, 비중

< '14 ~ '21년 복귀기업 복귀지역별 분포 >



* 단위 : 지역, 개社,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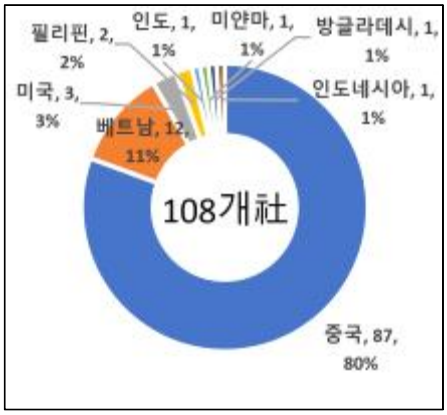
□ (진출국가) 중국(18개社), 베트남(4개社), 미국(2개社) 순으로 중국·베트남으로부터의 복귀기업이 80% 이상 차지

< '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>



* 단위 : 국가, 개社, 비중

< '14 ~ '21년 복귀기업 진출국가별 분포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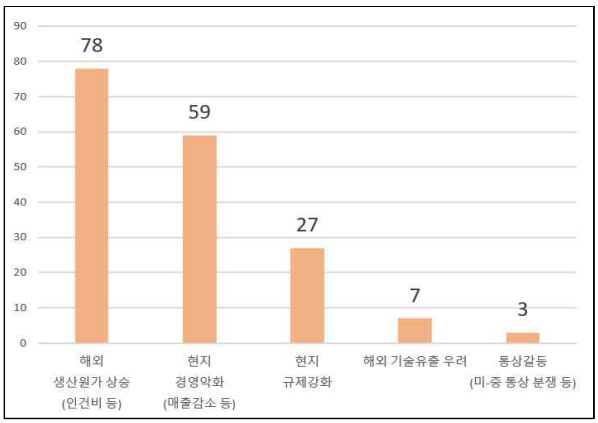
* 단위 : 국가, 개社, 비중

III. 평가 및 향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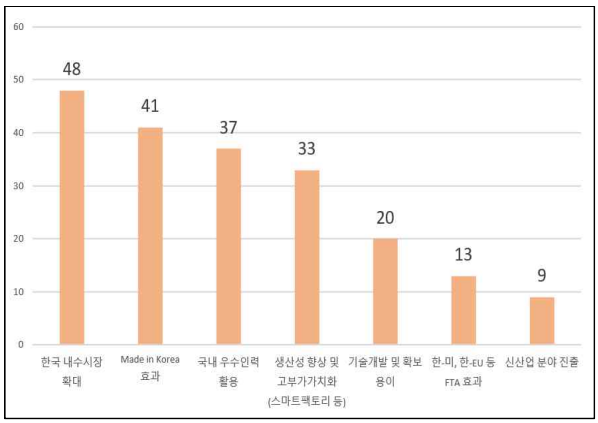
□ 국내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지원제도 개선과 적극적 유치활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

○ (환경 요인) 국내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(복수응답, 복귀기업 확인시 개별조사, KOTRA) 결과, 주요 복귀사유는 해외 환경 악화, 내수 시장 확대 및 '한국산'의 브랜드 가치 강화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

<해외진출 부정요인>



<국내복귀 긍정요인>



○ (정책적 지원) 지원대상 업종 추가·보조금 지원비율 조정 등 정책 수요자인 복귀기업 관점에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

* ①(**인정요건 완화**) 첨단업종·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
②(**지원대상 업종 확대**) 기존 제조업·정보통신업·지식서비스산업에 방역·면역 관련 산업 추가
③(**지원비율·금액 조정**) 지방에 대한 사업장당 투자보조금 한도(100억 → 300억) 및 지원비율 상향(기존比 +10%p)

□ **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,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**가 큰 만큼, **지원제도 활용** 및 **유치활동을 통해** 해외에 진출한 **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 확대**를 **적극 추진**

○ **국내복귀보조금('22년 570억원)**을 활용하여 **국내복귀 기업을 적극 유치**하고 **복귀기업들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**

* 국내복귀보조금 추이 : 200억원('20) → 500억원('21) → 570억원('22)

○ **유관기관·업종별 협단체와 협업**하여 **의향기업 유치 설명회 개최·코트라 해외무역관**을 **통한 대내외 홍보 및 IR** 추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박주형 사무관(☎ 044-203-406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유턴기업 현황**

□ **(유턴기업 선정 현황)** 법률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**108개社**

○ 연도별

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.12	계
17	2	11	4	8	16	24	26	108

○ 진출국가별

중국	베트남	미국	필리핀	인도	미얀마	방글라데시	인도네시아	계
87	12	3	2	1	1	1	1	108

○ 기업규모별

중소	중견	대	계
87	20	1	108

○ 업종별

전자	자동차	금속	주얼리	기계	화학	신발	섬유	기타	계
20	18	12	12	9	8	8	6	15	108

*기타 : 컨테이너, 인쇄물, 포장용기, 양조, 연마재 등

○ 복귀지역별

전북	경남	경북	충남	부산	경기	인천	대구	세종	충북	울산	광주	강원	전남	계
17	14	14	14	12	11	6	5	4	3	3	2	2	1	108

